

# SK이노, 美 조지아주 교육기관에 3만 달러 전달

### 배터리 공장 위치한 조지아주에 2차 기부

SK이노베이션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조지아주 교육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지켰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정부 청사에서 조지아주 교육기관인 EC3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 기부에 이어 2차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팻 윌슨 장관, 잭슨카운티 집소 상의 의장, EC3 존 이슬러 대표, CCS 조이 톨버트 대표, SK 배터리 아메리카(SKBA) 황준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월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주정부와 배터리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9일 진행된 2020 SK이노베이션-잭슨 카운티 기부금 전달식에서 (왼쪽부터) 잭슨 카운티 집소 상의 의장, EC3 존 이슬러 대표, SKBA 황준호 대표,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팻 윌슨 장관, CCS 조이 톨버트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따라 조지아주 교육기관인 EC3에 2년 간 6만 달러의 기부금을 약정하고, 3만 달러를 기부했다.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정부도 지역 사회의 미래 인재들을 위한 SK이노베이션의

지원에 공감해,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3만 달러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해당 기부금은 잭슨 카운티 커머시의 교육기관인 CCS에 기부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빛 바랜 K-방역



기지 수첩

이 세 경  
(유통&라이프부)

미국 시민권자인 지인 A씨는 내년 초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서울에만 머물던 이 가족이 미국행을 결정한 것은 다른 아닌 '백신' 때문이다.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벌써 승인 단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까지 속도를 내며 연내 백신 접종이 가시화 됐다.

토종 한국인은 그저 부러울 뿐이다. 코로나19 종식 희망으로 가득찬 그들의 연말이, 우리에게도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냐. 1년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과 수십년의 경험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력이나 규모 면에서 한참 부족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따라잡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백신 확보는 다른 얘기다. 이미 수억달러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점한 미국, 유럽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여전히 협상 진행 단계다. 외

신들은 한국 정부가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 까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코로나19가 잘 통제되고 있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믿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K-방역이다. 국내에서도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지만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해외에 비해 우리 상황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지쳐간다. 확산 초기 활주로 봉쇄 없이 이만큼 버텨온 것은 법벌이를 포기한 국민들과, 일상을 모두 쏟아부은 의료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출시가 임박한 코로나19백신의 예방률은 95%에 달한다. 다수의 부작용과 배송 문제를 극복해야 하겠지만 결국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건 백신 밖에 없다. 서두르지 않으면 한없이 뒤쳐진다. 독감 백신 사례에서 봤듯, 국내 백신 운송의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도 벌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던 K-방역은 백신 앞에서 순식간에 빛이 바랄 것이다. 일상을 되찾는 선진국을 바라보며 박탈감 마저 견뎌낼 인내심은 이제 없다.

/seilee@

# SPC, 고객과 함께 아동 주거복지 캠페인

### 고객 응원 댓글·공유 시 적립해 기부

SPC그룹이 연말을 맞아 주거 빈곤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SPC 해피슈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SPC해피슈어 캠페인'은 SPC행복한재단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발굴하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해피포인트 어플리

케이션(이하 해피앱)에 소개된 사연에 고객이 응원 댓글을 달거나 공유 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대신 기부하는 SPC그룹의 대표 온라인 사회공헌이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 달 여간 진행될 예정이며, 모금된 기부금은 주거복지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 소외계층 주거개선비로 전달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는 해피앱 내 해피스토리 '달콤



한 동행' 탭에서 가능하며, 참여자 200명을 추첨해 해피콘(해피포인트 모바일 쿠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오늘의 운세 11월 23일 (음 10월 9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48년생** 상대가 못마땅해도 오늘은 너그럽게 넘어가자. **60년생** 조상님들 산소를 보살피자. **72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84년생** 문서 운이 활발하니 거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
- 37년생** 늦가을의 경치가 더욱 아름다우니 힘내자. **49년생** 해가 지면 잠을 자듯 해가 뜨면 일을 해야. **61년생** 기회를 놓쳐서 때늦은 탄식이 절로 난다. **73년생** 집이 흠집투성이거나 내 집이라 기쁘다. **85년생** 말을 예의 바르게.
- 38년생** 타협이 해결책이니 인쟁하지 마라. **50년생** 지나친 자존감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62년생** 새로운 계획은 많은 것을 가져온다. **74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여행을 떠나도 무방. **86년생** 아차할 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 39년생** 여행을 금하고 집 안 청소를 하자. **51년생** 길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보다는. **63년생** 자신의 능력으로 승진하여 보람 있다. **75년생**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망신 수가 있으니 자중. **87년생**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 결국 원점.
- 40년생** 가리기보다는 옛 생각을 하여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52년생** 나무의 가지가 커지면 반드시 부러지니 잠시 물러서 보라. **64년생** 약기를 배워보라. **76년생**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다. **88년생** 작게 주고 크게 얻음.
- 41년생** 청춘한 남자가 죽었으나 한평생재물은 넉넉. **53년생**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학문에 몰두. **65년생** 공이 헛수고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기다려보라. **77년생** 마무리는 끝을 잘해야. **89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함.

- 42년생**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54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빗길에 가니 바꾸는 사람이 없다. **66년생** 자신의 천직에 보람을 갖도록 해야. **78년생** 투자나 매매는 반반이다. **90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행운이 있다.
- 43년생** 출사기를 반복하니 결국은 바보스러운 선택이었다. **55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 **67년생** 부모 유산을 기대하고 백수건달로 놀지 말아야. **79년생** 소통이 너무 잘되도록 이득이 어렵다. **91년생**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 44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56년생** 베풀어 고집을 부리면 가족도 외면. **68년생** 혼자 하거나 어렵고 남과 하거나 의견이 충돌되고. **80년생** 일이 너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걱정. **92년생** 계획 없는 이등은 자제를.
- 45년생** 자녀의 학문의 길도 여러 갈래니 전문기와 상용을. **57년생** 수치가 생겨도 화내지 말고 생각하라. **69년생** 더도 말고 오물만 같으면 좋겠다. **81년생** 투자를 서둘러서 후회가 마구. **93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 46년생** 자금이 당장은 힘들어도 풀린다. **58년생** 신념을 가지면 귀신도 나를 피해간다. **70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주니 스카프라도 해보길. **82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94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발걸음 가볍게 새 출발.
- 47년생**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데 지양자득이다. **59년생** 먼저 칭찬하고 이해할 것. **71년생** 비가 오니 밖에 나가지 않도록. **83년생** 정도를 지나치면 하지 않으니 못하다. **95년생** 마음만 바쁘고 진즉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 김상회의四季

### 귀인상봉

불가에서는 기도공양을 올릴 때 보통은 처음엔 귀의 대상에 대한 예경을 올리는 예불문을 올리고 그 다음엔 참회의 내용이 오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 발원을 하게 된다. 발원을 할 때는 개인마다의 소원도 간절히 바래보지만 사찰에서 사시 예불이나 새벽예불 등 모든 예불의 말미에는 바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원이 다 들어간다.

병고자는 건강발원 사업자는 재수대통 수행을 하는 이라면 일단 독로 학업자는 학업성취 등등 그 가운데 귀인상봉(貴人相逢)발원 내용도 빠지지 않는다. 귀인상봉이 뭐 그리 발원기도에까지 들어갈까. 하는 이들도 있다. 인생길을 살다보면 뭔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내게 도움을 주는 인연을 만나는 것이 천군만마를 얻는 일만큼이나 대단한 일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이듯 사람 사이의 좋은 인연은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복덕이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훌륭한 재목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탁견이 있다. 좋은 영향과 결과를 주며 때로는 생명을 구해준 이도 되고 때로는 나의 발전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도움을 주는 이들을 만날 때도 있고 단순한 좋은 말 한 마디에 자극을 받아 인생의 전기를 삼은 사람들도 있으며 인생 여정에는 누군가가 나의 귀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기도 한다.

한 사람에게서는 피해가 되고 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된다면 이를 두고 귀인상봉이라 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귀인상봉이라 할 수 있다. 업의 이치로 보자면 어떤 형식으로든 선업의 공덕은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작 출간! 문제출제: 손호성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면 브라운 저 | address | 15,000원

3	2		4	8	5	A	9	7	C
A	4			B	9		2	8	1
9			1	7	A	2		5	4
9		3	5	1	2		B	4	8
2	5	B	8				9	3	1
6	A	4		8	9			7	2
A	3			C	6		2	B	9
6	C	7	2				8	A	4
B	5	9		2	4	3	C		7
7	2		9	4	B	8			5
4	B	8		2	1			6	3
C	1	9	5	6	3	A			2

부동소수점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답

B	Z	8	7	V	L	E	9	S	6	L	
6	E	9	L	C	I	S	Z	V	8	B	
V	S	C	I	8	B	P	6	9	Z	E	
L	9	I	C	E	P	Z	6	7	6	9	8
E	P	7	8	L	9	S	6	B	Z	C	
9	6	8	Z	L	9	C	8	L	E	V	
Z	C	L	9	8	6	8	E	P	V	9	
9	L	E	6	P	C	V	L	8	9	9	
8	V	P	8	9	Z	L	9	E	C	L	
P	8	9	E	Z	V	L	L	C	9	6	
L	8	Z	9	6	E	8	C	L	V	V	
C	L	6	V	9	8	9	V	8	L	Z	

새로운 과난이도의 워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79호